

건강 칼럼

가을철 쥐 매개 감염병

가을철 야외 활동 시 많이 걸리기 쉬운 쥐 매개 감염병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쥐 매개 감염병이 있다.

쥐로 매개 감염병이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렘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한타 바이러스는 들쥐의 72~90%를 차지하는 등줄쥐가 주로 매개하며, 서울 바이러스의 경우는 도시의 시궁쥐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설치류들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적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타액, 소변,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체외로 분비하고 이것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상처 난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직접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는 없다.



김 이 언

구암한의원장

잠복기는 5~42일(평균 2~3주)이고 주요 증상은 발열, 지혈압기, 림프노기, 이노기, 회복기 등 5단계의 증상 단계가 나타난다. 발열기에는 갑작스런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오심,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가 나타나고 지혈압기에는 지혈압, 배부름,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난다. 림프노기에는 쿠노, 요독증, 신부전, 복통, 허약감, 혈뇨, 경련, 폐부종이 이노기에는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가 있어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후 회복기에는 전신 쇠약감이나 근력감소 등이 있으나 서서히 회복한다.

렘토스피라증은 렘토스피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 공통 발열성 질환이다. 균에 감염된 동물들의 소변에 직접 노출 또는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등에 노출 시 상처난 부위를 통해 전파된다.

잠복기는 2~30일(평균 5~14일)이며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치명적인 증상까지 다양하다. 패혈증기에는 균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검출되고 갑작스런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 등 독감 유사 증상이 4~7일 지속된다. 면역기에는 면역항체가 생성되면서 조직에서 균이 사라지고 뇌막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이 보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쥐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귀가 시 옷은 즉시 세탁하고, 사육나 목욕을 하며 야외 활동이 많은 군인, 농부, 광부, 오수 처리자, 쥐 실험연구원 등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 처리된 작업복, 장화 등을 착용하고 추수나 농 작업 및 수해 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

군산 오송회 사건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조성용 선생이 지난 8월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오송회(五松會) 사건은 1982년 전북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 토론회를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오송회라는 명칭은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경찰에 의해 붙여졌다. 고인은 1982년 한국방송공사 남원방송 방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국 토론회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당시 전북도경은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월북 시인 오정환의 시집 '병든 서울'을 놓고 내사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9명의 전·현직 교사를 불법 연행했다.

피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

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당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은 자백을 증거로 이적단체 구성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판결했다. 광주 고검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송회 사건이 독재 정권의 불법 연행과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2011년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인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조성용 선생은 1988년 사면·복권됐고, 이후에도 동화 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지내는 등 민주화 운동을 했다.

전북체육회장 선거 전망

두 번째 민선 전북체육회장 선거가 올 연말 치러진다. 현재 후보군으로 3~4명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현 정경진 전북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이 유력하다.

그는 최근 개최된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이다. 그는 체육 영재 선발대회 개최를 통해 숨어있는 체육 영재를 발굴했다. 정 회장은 민선 초대 체육회장 출마 당시 우수 풀나무 발굴 육성 및 대학 실업팀 창단 유도, 국제교류 및 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체육 역사관 건립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도 거론된다. 전북대 체육학 박사 출신으로 도체육회를 거쳐 현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이다.

전북체육진흥협회 위원, 대한체육회 시도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학교체육 위원과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30년 이상의 체육행정 실무 경험이 있다. 지난 1대 선거에 출마하려다 중도포기 한 바 있는 권순태 전 전북유도회장도 출마가 검토된다.

20년 가까이 유도화와 체육회에 몸담으면서 체험한 경찰과 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영 마인드가 큰 자산이다. 현재 (유)상무산업과 태인아스콘 회장으로 지역 경제에서 탄탄한 기반을 닦고 있다.

지난 1대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나왔던 윤중조 전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출마군 중 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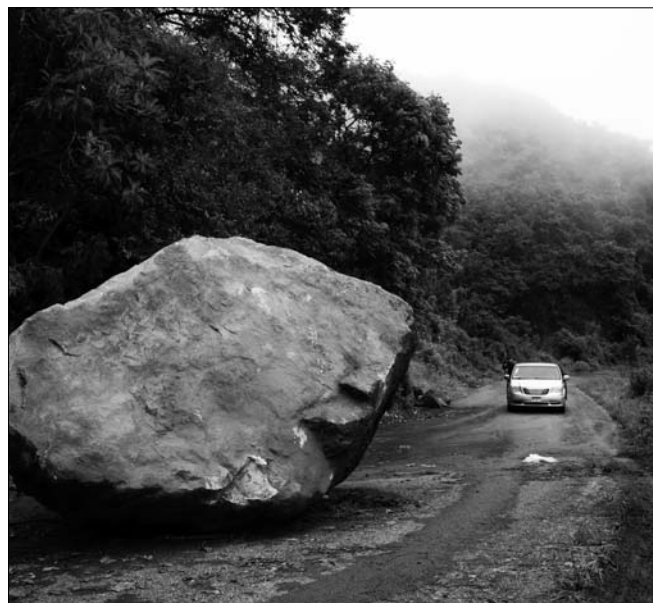
전라북도 골프협회 이사, 전라북도체육회 고문 등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그는 지난 선거 당시 통합 체육을 강조했다.

중독 활성화, 시군 체육회와 도체육회 사이의 수평적 소통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멕시코 강진, 도로에 떨어진 거대 바위



멕시코 미초아칸주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지난 20일(현지 시간) 차니쿠일라 인근 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985년과 2017년에도 같은 날인 19일에 지진이 발생해 희생자가 됐다.

푸틴 동원령 반발 시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뒤 러시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BBC는 러시아 인권그룹 OVD-Info를 인용,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동원령 반대 시위를 벌인 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